**풀이 눕는다, 하지만 이는 풀의 종자를 새로이 심는 것이다.**

글. 법무팀 박영준 대리

도서명 : 풀이 눕는다 (김사과 저.)

**“끝없이 이어지는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보겠다는 약속,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모 주간지를 정기구독 하던 중 이 책의 저자가 2005년 단편 『영이』로 제8회 창비 신인소설상을 수상하며 등단, 기존의 기성작가들과는 다른 새로운 화법과 전개로 문단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추천글 섹션이 있었고, 더불어 기존 기성작가들의 책에 집중된 듯한 나의 독서습관을 환기해보려는 의도였다.

『풀이 눕는다』는 이 젊은 작가의 두 번째 장편소설로, 한 젊은 예술가의 정신적인 성장기를 담아냈다. 풀과의 만남, 사랑, 그리고 두 번의 헤어짐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졌을 ‘나’의 방황과 성장의 이야기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묻는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보겠다는 약속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풀과 함께이기 때문에 안정된 삶에 이르는 모든 장치들을 제거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진짜 삶” “순수한 삶”을,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우연히 문학잡지에 자신의 글이 실려 '소설가'가 된 '나'는, 실은 글을 잘 써서 돈을 벌 능력도, 의례 다른 이들이 그러하듯이 사회생활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 능력도 없고, 따라서 그렇게 뻔하게 번듯한 '워킹클래스'로도 편입될 수 없는 그저 그런 부유하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어떠한 희망도 열의도 품지 않고 살아가던 어느 날, 나는 길가에 걸어가는 '그'를 보고 한눈에 반해 그를 쫓아가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하여 결국 '나'는 그를 '풀'이라고 부르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의 이름을 '풀'로 명명한 것은 어떠한 사회적 평가 내지 구조적 강요, 인간의 욕망과 허세 등이 완전히 거세된 자연 그대로의 그를 뜻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로 보인다. 즉, 날 것 그대로 자연으로서의 '풀'말이다. (만약 과일의 이름이나 기타 사람들의 욕망으로서의 가치가 투영된 아름답게 포장된 꽃들을 그의 이름으로 불렀다면 이 소설에서는 매우 어색한 명칭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나'와 '풀'은 의례 사회의 구성원들이라면 당연히 욕망하는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와 진솔한 욕망에 합치하는 삶을 살아간다. 한 없이 '0'원으로 수렴하는 통장잔고 따위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미덕으로 강요되어지는 생활을 위한 밥벌이도 거부하고 매일매일 서로를 탐닉하고 사랑하고 살아간다.

따라서 진솔하지 못하게 욕망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남는 게 전부라면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어디로 가야 하지? 왜 인간은 아름답다는 말을 갖고 있지? 그건 삼천만원짜리 핸드백이나 아니면 덴마크의 왕자가 사는 성에나 어울리는 말인거야? 그래? 그렇다면 너무 시시하잖아. 나도 알아 아름다운 것들은 박물관과 백화점에 있지. 하지만 박물관이나 백화점은 절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 못해. 단지 아름다운 것들을 가져다 놓은 것 뿐이야. 단지 그것뿐이야'** 라는 주인공 '나'의 질문과 진솔한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듯 '나'와 '풀'은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기에,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날 것 그대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 그리고 그토록 견고한 사회구조 안에서도 (결국은 굴복하고 힘겨워하고 그러한 외관으로 인하여, '풀'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유일한 '아름다움'이 존재하기에 '나'와 '풀'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도, 썩어서 퇴색하지도 않는 '영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관계로 '나'와 '풀'은 본질이 환영받지 못하는 우리의 세상에서 '본질'을 찾아갔던 (앞으로도 찾을 것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와 '풀'에게 찾아왔던 축복이었을게다. 따라서 비록 '풀은 눕지만' 이는 기실 눕는 것(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풀'들의 종자를 새로이 심는 일과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이끌어내기까지 참으로 힘들었다. 저자는 나보다 '무려' 일곱살이나 어리고, 그러한 젊은 여성의 사랑에 대한 감성을 이해하기에는 내가 (상대적으로) 너무 늙었을 테고, 이미 뻔한 삶의 한 가운데에서 ‘워킹클래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이를 다시 음미하는 과정은 참으로 벅차고 힘들었다. 젊은 작가 특유의 짧고 직설적인 화법이 힘겨웠고 (하긴 어쩌면 내 말투와 너무 닮아서일 수도 있다. 나의 화법으로 인하여 상처받았을 당신들에게 사과를 전한다),

또한 통상적인 해피엔딩과 같은 달콤한 과즙에 대한 기대는 커녕, 도리어 삶의 끝자락에 자신을 우겨넣어 그 고통을 감내하는 주인공을 투영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는 도리어 과유불급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만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삶과 사랑에 대한 진실성 (authenticity) 이니만큼, 열린 마음과 뜨거운 가슴이 전제된다면 꽤 괜찮은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